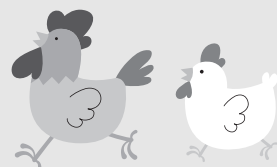


닭에 관련된 속담

Q. 닭과 관련된 속담이 있으면 알려주세요.

A. 닭은 예로부터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던 동물이라 그런지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.



1.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.

애쓰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.

2. 소 닭 보듯, 닭 소 보듯 : 아무 관심이 없이 서로 무심하게 보는 모양을 이르는 말입니다.

3. 닭 벼이 될망정 쇠꼬리는 되지 마라.

크고 훌륭한 자의 뒤꽂무니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고 보잘것없는 무리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뜻으로 비슷한 속담으로 용 꼬리보다 뱀 머리가 낫다는 것이 있습니다.

4. 닭이 천 마리 있으면 봉이 한 마리 있다.

여럿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.

5. 닭의 새끼 봉 되랴. : 본래 타고난 성품은 고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.

6. 닭 알인지 오리 알인지 알 수 없다.

달걀과 오리 알이 비슷하여 분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, 무엇이 무엇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.

7. 닭도 제 앞 모이 굶어먹는다. : 제 앞의 일은 자기가 처리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.

출처 : http://blog.daum.net/hello_0514/33

<http://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b646481&logNo=220920586632>

※ 본란은 독자분들께 사양, 유통, 질병, 시설 등 전반적인 양계에 관한 질문을 받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답변해 드리는 코너입니다.
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세요.
ch-spirow@hanmail.net(장성영 기자), wg1167@hanmail.net(임설희 기자)